투데이 칼럼

아프간 사태와 한반도 정세

정 복 규
논설위원 · 통일교육원

아프간 전쟁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시작됐다. 최근 미군이 떠난 아프간을 탈레반이 점령하면서 20년간의 전쟁은 막을 내렸다. 그런데 지난 8월 21일 북한이 돌연 아프간 사태를 문제 삼으며 대미 비난 공세를 재개했다.

북한 외무성이 아프간 사태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며 세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야말로 세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비판하며, 아프간 사태를 "주권 국가들의 제도 전복을 노린 국가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다.

사흘 뒤에는 쿠바와 시리아, 이란 당국자들의 미국 비난 발언들을 연달아 소개하며 북한도 같은 입장임을 시사했다. 북한 입장에선 여전히 미국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현재는 정전협정 상황이다.

북한의 최종 목적은 이 전쟁에서 아프간처럼 승리하고 결국 미국이 철수하는 모양새를 보길 원한다. 일각에선 아프간 사태를 두고 미국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이다.

한반도에서도 미국이 국익에 따라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반도에서도 미군이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아프간은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한미연합훈련 기간 방한한 성 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타이완, 한국, 나토는 아프가니스탄과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라는 것이다. 만약 누구라도 이들을 침략하면 미국은 대응할 것이고 일본, 한국 모두 마찬가지라고 했다.

실제로 한국은 고도로 정교한 무기와 지휘 체계를 갖춘 50만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을 규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정책을 고려하면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극단적 카드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연설에서 1960년대 베트남 전쟁 개입 확대를 지지했던 전임 대통령들을 비판하며 국익을 우선시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국익이 아닌 갈등 상황에 오래 머물고 싸우던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동맹 관계는 계속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 세계 동맹국들에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 스스로 북 핵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방한했던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유화 메시지를 거듭 보냈다. 그는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러시아의 북핵 대표와도 양자 협의를 가졌다.

성 김 대표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강하게 반발한 상황에서 한미 북핵 대표들은 북한과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를 통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성 김 대표 방한 기간 중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언제, 어디서든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마주 앉겠다며,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엔안보리 결의안 이행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성 김 대표는 미국이 먼저 유인책을 제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화가 우선이라고 답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보란 듯 민생 행보에 나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당장 직접적인 도발로 미국을 자극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아프간 때문에 미국의 방어 공약이 약화 돼있다. 동맹국과 우호국들이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전까지만 해도 시시각각 안보 위기를 느끼게 해주겠다며 위협을 가했다.

최근 아프간 사태가 터지면서 관망세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아프간 사태의 파장이 한반도 정세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 설

싱크 탱크 2022 희망전진대회의 의미

천주평화연합(UPF)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공동 주최한 'THINK TANK 2022 희망전진대회'가 최근 세계 194개국 200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열려 주목을 받았다.

'신통일한국을 위한 연대 및 한반도 평화 서밋 조직위원회 출범'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국제적 참석자들을 위해 12개 언어 동시통역으로 개최됐다.

대회는 9.11 테러 참사 20주기를 맞아 전체 묵념으로 시작했다. 이어 한국·미국·일본의 개신교·천주교·이슬람교·힌두교·불교·유교·천도교·신도·가정연합 종단 지도자들의 평화 축원식 그리고 평화의 노래 제창이 있었다.

한학자 총재는 "이제 한반도 통일을 이뤄 한반도에서 시작한 신태평양 문명권의 문화가 아시아 대륙을 통해 전 세계로 펼쳐나가 공생·공영·공의의 참사랑 운동, 참가정 운동으로 확산해 인류 모두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천주 대가족이 되자"고 평화 비전을 제시했다.

올해 5월 출범한 THINK TANK 2022는 더불어 잘사는 공생의 경제, 더불어 참여하는 공영의 정치, 더불어 실천하는 윤리의 공의를 가지고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 1011명과 세계 1011명 등 2022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다. 포럼은 외교, 정치, 국방안보, 식량안보, 경제, 백신안보, 문화 스포츠, 학술, 언론, 종교 분야로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위기를 극복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연대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리더십이 절실하다.

THINK TANK 2022 공식 출범이 인류의 공동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노인회 우성자원봉사클럽의 봉사활동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우성자원봉사클럽이 최근 전주시 삼천동 우성아파트 일원에서 마을 가꾸기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 같은 봉사활동은 이미 오래 된 일이다.

2017년 결성된 우성자원봉사클럽은 회원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월 2회 이상 활발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파트 내 잡초 제거와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화는 물론이다.

2년 전부터는 500미터 거리의 도로변 화단에 꽃무릇을 심고 가꾸었다. 붉게 물든 꽃무릇이 활짝 피어 가을의 정취를 선사하고 있다.

윤세진 코치는 "80세가 넘으신 회원들이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활력을 찾고 즐겁게 일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전북연합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장은경 센터장은 "어르신들은 헌신적인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참 어른의 모습에 응원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노인회전북연합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는 해마다 '노인자원봉사클럽 회원 소양교육'을 실시한다. 자원봉사 활동 분야, 활동 유형, 활동 사례 교육을 한다. 이는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일이다.

노인의 자원 봉사는 최고의 행복이다. 자원봉사 활동은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인다.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보람 있는 활동이다. 100세 시대 노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원봉사클럽 회원으로서의 자부심을 키운다.

남은 인생을 회원들과 함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보람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활동에는 어르신 안전이 최우선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기를 당부 드린다.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어르신 봉사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온라인으로 간 민주주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투표 방법이 있었다.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도편추방제라는 투표 방법이 있었다. 도자기 조각이나 조개껍질 등을 이용하여 국가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을 국외로 10년간 추방하는 것이었다. 더 특이한 투표 방법도 있었다. 케냐에서는 투표용지에 찬성은 바나나로, 반대는 오렌지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바로 문맹률 때문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에 도입된 투표 방법으로는 온라인투표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KT가 공동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용을 승인한 기관·단체는 PC,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웹, 모바일 환경에서 투표를 관리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정당의 당내경선, 아파트 선거, 각종 조합 선거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온라인투표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유권자가 언제 어디에서든지 투표할 수 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정확한 개표 결과를 보장할 수 있다. 모든 투표자의 투표 결과가 위·변조, 삭제, 누락 없이 시스템에 정확하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셋째 중복투표 및 대리투표를 예방할 수 있다. 휴대전화 문자인증, 컴퓨터 이메일 인증을 통하여 실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실시한 유권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온라인투표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용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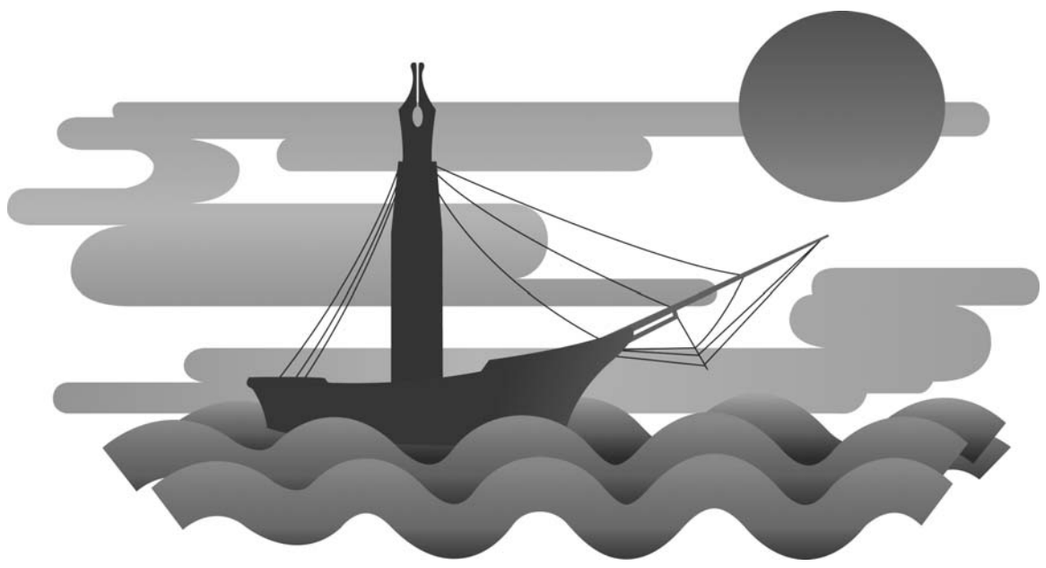
앞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투표를 다양한 선거에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이며 기술적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송준기 무주선관위 지도주무관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버스 안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하는 인도 사람들

지난 24일(현지시간) 인도 아마다바드 주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소로 개조한 버스 안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